



문학구장의 노란 물결 2011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8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KIA와 SK의 준플레이오프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2차전이 열린 9일 KIA 팬들이 관중석을 노란 물결로 물들이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 관련기사 16면 /인선=김진수기자 jeans@

## 인화학교 운영법인 허가 취소 시설 폐쇄 장애인 성범죄 친고죄 폐지·가중 처벌

### 정부 '도가니' 종합대책

인화학교를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법인 허가가 다음달 초 취소될 전망이다. 정부도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친고죄 폐지 등 뒤늦은 대책들을 쏟아냈다.

광주시는 9일 "10일 인화원과 인화학교에 시설폐쇄와 인화학교 위탁지정 취소 사실을 사전 처분 통지하고 10일간의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석 법인의 허가 취소 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오후 광주시 교육청, 광산구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과 함께 2차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도 같은 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

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 대책은 크게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인화원 폐쇄,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인 공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올리고, 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전국 16개 시도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187곳에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상설 모니터단'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교과

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특수교육 관련 교육전문직 33명, 교원 55명 등 총 88명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은 제2의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막기 위해 전국 경찰서 2~4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전원 여경으로 구성된 성폭력 전담조사팀을 편성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성폭력 피해자를 24시간 상시 체제로 조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강운태 광주시장은 9일 오전 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청각장애인들이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 관계기관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사회복지법인의 허가 취소가 이러한 일에서 이에 대해 반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식기자 chadol@

공천 물·야권통합, 선거구 획정·석패율 도입 아직도 안갯속

## 6개월 앞 총선, 혼선속 무한경쟁

### 광주·전남 벌써 100여명 경합

내년 4월11일 치러지는 19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민심 잡기'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현역 의원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이용해 '지역구 수성'에 안간힘을 쏟고 있고, 현역 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출마 예정자들은 '현역 물갈이론'을 내세우며 여론 잡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 경선을 결정 짓는 야권 통합문제와 맞물려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석패율제 도입과 선거구 획정 문제 등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지역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9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19대 총선을 6개월 앞둔 현재 광주·전남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 사퇴 시한이 총선일 90일 이전인데다 최근 '안철수 돌풍'에 따른 정치권 불신으로 인해 각 정당에 따른 총선을 앞두고 '신선한 피수혈'을 위한 새로운 인물 영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출마 예정자들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30여 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민주당 공천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내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지역 20개 지역구 현역 의원들은 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울인'하면서도 수시로 지역구에 내려와 경료잔치 등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지역주민들과 만남을 늘리며 지

역구 다지기에 여념이 없다. 이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이용해 지역구 조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며,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지지도 끌어올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현역 의원을 제외한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현역의원들이 국정감사로 지역구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틈을 타 경료당과 사회복지시설, 지역구 각종 행사에 얼굴을 내밀며 인지도를 올리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들 중 민주당 내 일부 40대 정계 신인들은 '혁신과 통합을 위한 새 정치 도입'을 발족하고 공천제도 개혁과 인적 쇄신 등을 위한 정치적 현안에 공동 대처키로 하는 등 총선 행보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천물은 아직까지 질은 안개에 쌓여 있어 지역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개혁특위가 지난 8월 최고위원회의에

공천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각종 논란만 양산한 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이 맞물리면 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또한, 야권 대통합과 야권 연대 논의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이 대통합보다는 연대로 갈 가능성이 큰 만큼 광주·전남 야권 연대 선거구에 대한 관심도 높다.

따라서 총선 예정자들은 중앙당의 공천 규정과 야권연대 선거구 대상지역 선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역구 민심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이 최근 1년여 가까이 사고 지역당으로 지정됐던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당원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등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또 내년 총선에 석패율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각 선거구에 모든 후보를 낼 계획이 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신재민 검찰조사...이국철 "검사장급에 1억 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민 부장검사)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10년간 10억원이 넘는 현금, 법인카드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9일 오전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이 이 회장의 폭로 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신 전 차관을 전격 소환함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에 변호사와 함께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나와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게 사실이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여기에 출입해 취재를 했었는데 조사

를 받을 줄 몰랐다"며 즉답을 피한 뒤 12층 조사실로 향했다.

신 전 차관은 출석 2시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로서는 무척 억울한 일이나 동시에 고개를 들고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기도 하다"며 "제가 한 일이 죄가 된다면 당장 퇴직을 신청하겠습니다"고 심경을 밝혔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을 상대로 이 회장과의 거래와 함께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나와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게 사실이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여기에 출입해 취재를 했었는데 조사

에게 전달했으며, 김씨가 이 돈을 검사장급 인사 두 명에게 건넸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검사장급 인사 두 명은 현재 검찰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은 9일에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 전 차관을 포함한 정관계 고위인사들에 대한 비방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1년도 제22년차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 일시: 2011. 10. 16(일) 09:30
- 장소: 모교운동장
- 전화: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정 병 용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경 대광여고** 2011.7.12. 학업성취도 평가 (보통학력이상 비율 98.1%) **전국 최우수!**

『불휘 기쁜 남근 벚매 아니될씩 꽃도코 여름 하느니』

- 교육청 승인 '수학영재학급' 8년 연속 운영
- 전국 최우수 '영어교육 리더학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
- 2007·2008·2009 빛고을 독서마라톤대회 최우수학교 교육감특별상 수상
- 2009·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최우수 교육감상 수상
- 하버드대 Ph.D 등 외국유학생 218명 배출
- 서울대 의예과 등 전국 의·치·한의예과 총358명 합격!
- 서울대 최근 12년간 총 '72명' 합격!
- 서울대 법학과 전국 여고 최초 12개년간(15명) 합격!
- 사범시험 합격자 17명 배출!
- 조유리(제14회 졸업) 서울대 의대 졸업, 서울대병원 근무 전국 의·치·한의예과 총358명 합격
- 고인선(제12회 졸업) 제47회 사범시험합격 사범시험 합격자 17명 배출
- 신이정(제23회 졸업)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합격 서울대학교 최근 12년간 총72명 합격

2010.12.30 『사교육 없는 학교』 성과 전국 최우수학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

世界로! To the World! 대광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未來로! To the Future!